

玉吾齋 宋相琦 산문의 성격과 의의*

김 우 정**

Ⅰ 국문초록 Ⅰ

이 글은 숙종 연간 노론계 문신 玉吾齋 宋相琦(1657~1723)의 작가적 위상과 그 작품의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송상기는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문단에서 관각문의 고수로 평가받은 文翰이다. 관각문에서는 자신의 개성적 색채가 두드러지지 않게 하는 한편 상황과 내용을 고려하여 ‘瞻蔚’하면서도 ‘質實’하고 ‘典麗’하면서도 ‘周密’한 관각문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또한 『東文選』과 『東文選』 속집의 뒤를 잇는 관찬 시문선집인 別本 『東文選』의 편찬을 주관하기도 하였다. 이런 그의 문학적 성취는 權近·卞季良·徐居正·成俔 등 전기의 관각가와 南有容·李天輔·黃景源 등 후기의 관각가 사이에서, 관각문의 문체적 특징과 전개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개인적 취향이 반영된 일련의 기문에서는 글의 흐름을 고려한 서술기법과 치밀한 문장구조, 짙진한 사실성과 명쾌한 논리로 문학성이 풍부한 작품세계를 실현하였다. 이로 볼 때 송상기는 단지 17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관각가로서만이 아니라 고문가로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장가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송상기, 산문, 고문, 관각문

Ⅰ 목 차 Ⅰ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고문가로서의 가능성 - 記文의 문학적 성취 |
| II. 송상기의 작가적 좌표 | V. 나가는 말 |
| III. 송상기 관각문의 특징 | |

I. 들어가는 말

『숙종실록』에는 “淸의 사신이 우리나라의 詩文과 筆法을 보기를 요구하니, 『東文選』과 『靑丘風雅』를 騰抄

* 이 연구는 2011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rtoran@dankook.ac.kr

해 주고, 또 글씨 잘 쓰는 사람을 골라 글자를 써서 보여 주었다.”¹⁾는 기록이 보인다. 숙종 21년(1695)의 일인데, 우리나라 시문에 대한 중국 쪽의 관심은 사실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보다 꼭 1백년 앞선 선조 28년(1595)에도 명에서 파견된 사신이 조선의 詩賦를 보내달라는 명의 요청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동문선』 외에는 딱히 보여줄 책이 없었기에 시선집을 새로 편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이 『海東詩賦選』(不傳)이다. 처음에는 홍문관에서 맡았다가 撰集廳을 별도로 설치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柳根·尹根壽·李好閔·吳億齡·申欽·李廷龜·韓浚謙 등 당대 일류 문사들이 투입되어 선조 38년에 간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이와 같은 국가사업 이외에 개인적으로 조선의 시를 가려 뽑아 간행한 경우도 있었다. 원병으로 또는 사신의 신분으로 조선을 방문한 吳明濟·朱之蕃·丘坦 등을 통해 조선시가 명의 문단에 소개되었고, 이것이 焦竑·汪世鐘·藍芳威·錢謙益 등에 의해 재차 옮겨지면서 더욱 널리 전파되었다.²⁾ 17세기 후반으로 넘어가서는 숙종 4년(1678)에 황후의 존호를 반포하기 위해 온 사신단의 일원이었던 孫致彌가 조선의 시를 모아 『朝鮮採風錄』이란 제목으로 간행한 일도 있었다. 이 책은 현재까지 실물이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王士禎·朱彝尊·尤侗의 저술에 발췌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강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공식·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조선의 시문을 접한 중국 측에서는 더 많은 양의 시문을 보고자하였으니, 앞에 든 숙종 21년의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숙종 39년(1713)에는 『全唐詩』·『古文淵鑑』·『佩文韻府』 등 3백여 책을 보내오면서 조선의 시문을 보내 줄 것을 재차 요구해왔다. 이때 조선에서는 이미 보낸 『동문선』과 『청구풍아』 외엔 더 이상 보내줄만한 책이 없었으므로 『동문선』에 수록되지 않은 근세의 시문을 따로 뽑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인조 연간 이후의 문집에는 청에 피휘해야 할 내용도 적지 않게 있었으므로 세심하게 선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런 사연 속에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別本 『東文選』’³⁾인데, 이 사업을 주관한 이가 바로 당시 대제학이었던 宋相琦(1657~1723)다.⁴⁾

송상기는 애초 청에서 요구한 것은 詩賦뿐이지만 다른 글도 함께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중론을 받아들여 이전에 간행된 『동문선』에서 시문을 선별하는 한편 명종 이후에 간행된 문집에서도 시문을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당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엮갈리던 당시에 문학에 능한 사람이라면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참여하였으며, 또 불과 3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완성된 것으로 보아 이 사업은 모든 역량이 총집결된 국가적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송상기가 이처럼 막중한 과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은 그가 당대 문단에서 차지한 위상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또한 그는 宋時烈의 족질이자 金壽恒의 외종질로서 노론의 핵심적 인물이었으며, 외사촌인 金昌協·金昌翁 형제와도 깊은 유대를 맺고 있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송상기는 秦漢文에 대한 관심과 함께 도래한 17세기 초의 복고적 문풍이 노론계의 이론적 비판에 직면하

1) 『숙종실록』 21년 1월 12일조.

2) 吳明濟와 藍芳威는 제목이 동일한 『朝鮮詩選』을 각각 간행하였다. 焦竑도 같은 제목의 책을 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현재 이 책은 전하지 않는다. 汪世鐘이 편찬한 『朝鮮詩』 역시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錢謙益은 『조선시선』을 바탕으로 하여 『列朝詩集』에 조선의 한시를 소개하였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종묵(2009) 참조.

3) 주지하다시피 『동문선』은 모두 세 차례 간행되었다. 성종 때 간행된 『동문선』과 구별하기 위해 중종조에 간행된 것을 ‘속편 『동문선』’, 숙종조에 간행된 것을 ‘별본 『동문선』’으로 일컫고 있다.

4) 별본 『동문선』의 간행 경위는 이종묵(1998) 참조.

여 다시 唐宋文 위주로 선회하게 되는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문단의 경향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닌 문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한문산문 연구는 그 관심의 범위가 아직 송상기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김창협과 달리 그의 문집에 시문에 관한 견해가 거의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인데, 작품보다는 이론과 비평에 대한 분석이 위주인 현재의 연구풍토에서 이처럼 이론적 천발이 드문 작가를 다루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작품에 대한 분석적 탐색이 동반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한국 한문산문사 서술이 가능해질 수 있다면, 이런 점에서 송상기는 산문 문단의 변화양상을 작품의 차원에서 보여준 작가로서 주목되어야 마땅하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출발로써, 이 글에서는 우선 송상기가 당대 문단에서 어떤 작가적 위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문장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문학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송상기의 작가적 좌표

『三淵集』에는 金昌翕이 송상기에게 보낸 여러 편 의 서신이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1714년에 작성된 한 서신 가운데 ‘澤堂·谿谷·簡易集抄評附’, 즉 ‘澤堂 李植, 谿谷 張維, 簡易 崔崐의 글을 뽑는데 대해 평해 붙임’이라는 부제가 달린 글이 있는데, 이로 보아 송상기가 별본 『동문선』을 편찬할 당시 상호간에 여러 차례 서신을 통한 의견교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⁵⁾ 두 사람이 이처럼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의사존간으로 정치적 동반자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깊은 교분을 나눈 사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김창협이 호평한 글이 별본 『동문선』에 수록되지 않았거나 반대로 악평한 글이 수록된 경우도 적지 않다.⁶⁾ 현전하는 송상기의 문집에 별본 『동문선』 편찬과 관련한 기록이 전혀 없어 무슨 이유로 김창협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송상기 자신의 선록기준은 무엇이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김창협의 의견만을 수용할 수는 없었으리라 추정할 뿐이다. 또 별본 『동문선』이 내부적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청 조정에 보내기 위해 편찬된 책이라는 점도 선록의 자유를 제약하는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⁷⁾

5) 金昌翕, 「與宋玉汝(甲午)」, 『三淵集』拾遺 권16. 李植의 글 11편과 張維의 글 29편, 그리고 崔崐의 글 28편에 대한 논평이 담겨 있다. 정황상 송상기는 김창협 외에도 여러 사람과 의견을 나누었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누구와 의견을 나누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6) 이를테면 “문장의 격조가 평범하다.(文格則平平).”는 평을 받은 이식의 「贈鍾英上人序」가 선록되지 않고, “경쾌하고 맑아 운치가 있으니, 선록하는데 손색이 없다.(輕清有韻致, 無愧入選).”고 한 장유의 「申公壽序」가 선록된 것은 양자의 의견이 일치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도가 삼엄하고 성조가 우렁차 우리나라 사람이 쓴 문집 서문 가운데 상품이라 할 만하다. 장유의 「간이당집서」에 견주어 상대가 될 만한 솜씨라 할 수 있다.(法度森整, 聲調鏗鏘, 允爲東人集序中上品. 比之谿谷之簡易序, 可謂對手).”는 평을 얻은 이식의 「谿谷集序」, “기격과 사조가 모두 울연하다.(氣格與詞藻並蔚然).”고 높이 평가된 장유의 「送吳肅羽序」, “의장은 가공에서 나왔으나 정리는 신과 통함이 있으니, 문장의 오묘함이란 이와 같음이 있다.(意匠雖出架虛, 而情理有足通神. 文之爲妙有如此).”고 상찬받은 최립의 「博淵祈雨文」 등은 선록되지 못하였다.

7) 『숙종실록』 39년(1713) 8월 15일조에, 『東文選』에 기재된 戊戌奏文의 ‘祖宗’이란 표현을 비롯해 ‘胡越’·‘胡僧’·‘夷棘’ 등의 글자가 청을 저촉할 수 있기에 급히 다른 글자로 바꾸어 鑄字해 사행단이 압록강을 건너가기 전에 改補하도록 지시했다는

송상기는 같은 가문의 어른이자 스승인 宋浚吉과 宋時烈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또한 외가의 영향도 적지 않아 외숙인 金壽增·壽興·壽恒에게도 가르침을 받았으며 외사촌인 김창협·김창흡 형제와의 교유 또한 각별했다. 이들이 모두 17세기 노론을 대표하는 학자이자 문인이었음을 감안하면 송상기도 그러한 학문과 문학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그의 문집에서 문장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옥오재집』에 관각문이 많은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송상기는 1684년 28세에 과거에 합격한 뒤 1712년 이조 판서에 임명되기까지 외직에 나간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홍문관·예문관·성균관과 사간원·사헌부·승정원 등 학문과 문장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현재 『玉吾齋集』에 남아있는 疏箚와 啓議 등 다양한 유형의 公車文과 冊文·敎書 등이 바로 이처럼 화려한 관력의 결과물이다. 이 문집은 송상기의 자편 초고를 바탕으로 아들 必煥을 거쳐 손자 載禧에 이르러 1760년에 간행된 것이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과정에서 송상기가 김창흡에게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신을 포함해 단 한편의 서신도 수록되지 않았으며, 비교적 문예적 성격이 강한 증언류나 잡기류 산문도 몇 편 되지 않는다.⁸⁾ 반면에 관각문은 기형적일 정도로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후손들이 ‘관각의 대가’로 인정받고 있던 그의 위상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송상기의 관각문은 이후의 문단에서 어떻게 평가되었을까. 이에 관해서는 조선조 관각문을 개관한 正祖의 발언이 주목된다. 정조는 조선조의 관각문이 權近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하며, 卞季良과 徐居正을 전기를 대표하는 작가로, 李廷龜와 南龍翼, 李敏敘를 중기를 대표하는 작가로 꼽았다. 더불어 이들 관각문의 특징에 대해서는 집짓기에 비유하여, ‘전체 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데만 신경 쓸 뿐 기이하고 교묘한 모양은 요구하지 않지만 사면팔방이 반듯하여 일부러 꾸민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였고, 송상기의 관각문에 대해서는 ‘남용익과 이민서의 법도에서 나왔으며 濃熟한 기력은 미치지 못한다’고 평하였다.⁹⁾ 깊은 식견과 폭넓은 독서량, 게다가 黨色이란 혐의에서도 자유롭고 공거문을 예사로이 읽는 위치에 있는 군왕의 발언이기에 송상기의 관각문에 대한 정론으로 받아들여도 좋을성싶다. 즉, 송상기는 남용익과 이민서의 뒤를 이어 관각을 대표하는 문장가이며, 그 특징은 대체로 기이하거나 교묘함을 추구하지 않아 인위적인 조탁의 흔적이 없으며 글의 구조를 탄탄하고 유기적으로 구성한 데 있다는 것이다.

송상기와 학문적·정치적 입장을 함께 했던 동료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관각문을 위시하여 송상기 산문의 전체적 특징이 어떠하였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趙正萬은 “駢文과 對策도 손길 가는대로 끝없이 나왔고 詞賦에도 뛰어났으니, 뉘라서 다시 교정할 수 있었으랴. 農巖이 매번 탄복하여 ‘두려운 벼’이라 하

기록이 있다.

8) 康津 유배 기간에 쓰인 최후의 저작인 『南遷錄』에, 자신의 시 한 수가 私囊에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기록해둔다고 한 내용을 보인다. 『옥오재집』이 송상기 자신에 의해 일차 정리되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 뒤 그의 아들 必煥이 유고를 수습해 李宜顯과 李秉常에게 刪定받고, 다시 必煥의 아들 載禧가 金在魯·俞拓基·金元行·洪啓禧의 校正을 받아 간행한 것이 현전하는 『옥오재집』인데, 여기에는 위에 언급한 시는 물론 단 한편의 서간문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9) 正祖, 『日得錄』, 『弘齋全書』 권161. “我國館閣體, 肇自權陽村, 而伊後如卞春亭·徐四佳輩, 亦以此雄視一世. 近古則李月沙·南壺谷·李西河, 又相繼踵武, 各體俱備. 比若大匠造舍, 間架範圍, 只管牢實做去, 不要奇巧底樣子, 而四面八方, 井井堂堂, 了不見斧鑿痕, 此亦可爲一代巨擘. 生壺谷可怕, 館閣家至今傳以爲美談. 曾觀玉吾齋宋相琦文集, 這箇各體, 亦從壺·河規度中出來, 而但氣力終不及濃熟.”

였지.”¹⁰⁾라고 하여 관각문의 여러 문제에 능란했다고 추회하였다. 또 朴弼周는 ‘글 짓는 속도가 매우 빨랐으면서도 견해가 탁월하다’고 평가하며, ‘민첩하면서도 절묘하고, 풍부하면서도 사리에 통창하였다’고 한 宋時烈의 평과 ‘붓을 잡자마자 글을 완성하는 솜씨는 내가 미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라고 한 金昌協의 평을 아울러 소개한 바 있다.¹¹⁾ 신속히 지었음에도 내용이 풍부하고 논리가 주밀한 글이 바로 송상기 관각문의 특징이었던 셈이다.

공의 문장은 넉넉하고 성대하며[瞻蔚] 학식은 더욱 깊이가 있으면서도 넓다. 임금에게 덕스럽게 행동해야한다고 권면하고 경계하는 글을 올릴 때, 진실되고[誠實] 간절하였으며[懇到], 또한 문장의 체제를 갖추었다. 관각에서 封事나 上疏를 올릴 때는 곧 공에게 草稿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당시에 연경에 사신을 보내 동공을 책봉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비준을 받지 못하였다. 그 사신에게 죄를 내리고 이 일을 완수할만한 사신을 최대한 골랐는데, 공이 명령을 받고 떠났다. 여러 차례 바칠 글을 지었는데, 말의 이치가 명확하였다. 오랑캐들도 좋은 문장이라고 칭찬하고 흔쾌하게 허락하였다.……다시 아버이 봉양을 위해 한산 군수가 되기를 바랐으나, 諫臣이 文雅하여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니 조정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아뢰었다.……임금이 노하여 그들(尹拯 일파)에게 죄를 주고, 공을 승지·예조와 이조의 참의 겸 승문원부제조 등에 임명하니 文苑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고른 것이다.……얼마 뒤에 대제학에 발탁하니, 하대부의 반열에 있는 사람으로 문형을 맡은 일은 조선이 개국한 이래로 몇 사람 되지 않았다. 공의 文望이 가장 높았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공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 마침내 공을 들어 발탁한 것이다.……곧바로 거리낌 없이 중상모략하니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 文衡은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곧바로 다시 임명된 경우가 두 번이었다. 그 자리에서 교체되면 제학을 제수 받았으니, 십수 년 동안은 詞垣에서 떠나지 않았다. 공의 문장은 두터우면서[積厚] 주밀하게 구성하였대[用周]. 더욱 갑자기 지어야 하는 문장에 뛰어났는데, 높은 수준을 요하는 문장과 장편을 지을 때도 입으로 중얼거리며 곧바로 지은 경우가 많았지만 조금도 흠을 잡을 수 없었다. 농암 김창협이 매번 자신은 미칠 수 없는 경지라고 추대하였다. 여러 번 나라의 과거 시험을 주관하였는데, 浮華한 글을 물리치고 質實한 문장을 우대하니 문풍이 크게 변하였다.¹²⁾

위 글은 李宜顯이 지은 「神道碑銘」에서 관각의 문장가로서 송상기가 어떤 활약을 했으며 그 문장의 특징은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부분만 발췌한 것이다. 우선 송상기의 문헌활동에 대해 요약하자면, 관각에서 문서

- 10) 趙正萬, 「聞玉齋之喪……爲韻賦得十篇送置其靈几前聊洩此悲」, 『寤齋集』 권2; 『玉吾齋集』 권18. “駢儷與大策, 信手寫不竭. 詞賦亦其長, 誰復試郢質. 農友每歎服, 謂與畏老匹.”
- 11) 朴弼周, 「吏曹判書大提學宋公諡狀」, 『黎湖集』 권31; 「諡狀」, 『玉吾齋集』 권18. “爲文章, 見解超絕, 結撰神速. 尤庵嘗曰: 某之文, 敏妙瞻輻, 最不可當. 農巖金公昌協, 亦推讓公一頭而曰: 操筆立成, 則非吾所能及.”
- 12) 李宜顯, 「吏曹判書玉吾齋宋公神道碑銘并序」, 『陶谷集』 권9; 「神道碑銘」, 『玉吾齋集』 권18. “公文辭瞻蔚, 學識尤淹博. 勉戒君德, 誠實懇到, 最得體. 館中凡有封奏, 輒屬草於公. ……時請冊東宮於燕, 未准, 罪其使, 極擇他使, 公膺命以往, 屢製呈文, 辭理明確, 虜中亦稱好文士, 快許之. ……又祈養得韓山, 諫臣言文雅負重望, 不可去朝. ……上怒罪其人, 遞拜承旨·禮史二曹參議兼承文副提調, 文苑極選也. ……俄擢拜大提學, 由下大夫直掌文柄, 國朝以後不數人. 公文望最高, 羣議以爲非公莫可. ……公困於羣咻, 三辭而遞, 自後凡九入銓, 激揚清濁, 甄拔淹滯, 善類恃賴, 而異論者患爲己不利, 輒肆中傷, 不得久於位, 文衡才遞旋授者再, 遞則授提學, 十數年不離詞垣. 公爲文, 積厚而用周, 尤長於應卒, 高文大冊, 多口占立成, 絕無瑕點, 農巖金公每推爲不可及. 累掌國試, 紉浮敦實, 文風爲之不變.”

를 작성할 때 초고를 쓰는 일이 많았고, 뛰어난 문장력으로 외교적 현안을 해결했으며, 글을 잘 짓는 사람이 조정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외직에 나가지도 못했고, 품계를 뛰어넘어 대제학에 제수되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그의 문장이 지닌 특징을 요약하면 ‘瞻蔚’하고 ‘誠實懇到’하며 ‘積厚用周’하고 ‘質實’하여 ‘浮華’함을 경계했으며, 창졸간에도 흠잡을 데 없는 글을 지어냈다고 할 수 있겠다. 앞서 거론한 조정만과 박필주의 평가 흡사한데, 송상기 역시 이와 통하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송상기는 일찍이 김석주를 기리는 글에서, “문장은 精深하면서도 典麗하여 긴 글이나 짧은 글이나 모두 법도에 맞았으며 표현과 내용을 구비하였다. 奏議文은 더욱 핵심을 드러내어 절실하게 표현하였다.”¹³⁾고 하였고, 선친의 書簡과 疏章에 대해 “내용이 뛰어나고 수사도 훌륭하며 논리가 명백하고 절실하여 부화한 기운이 조금도 없었다.”¹⁴⁾고 하였다. 그 자신의 문장에 대해 말한 것은 아니지만 송상기가 어떤 문장을 지향하고 있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Ⅲ. 송상기 관각문의 특징

숙종 23년(1697)에 동궁 책봉을 위해 사신을 파견했으나 淸 조정의 미온적인 태도로 결국 임무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다. 이 일로 크게 심기가 상한 숙종은 정사 徐文重, 부사 李東郁, 서장관 金弘植을 모두 삭탈관작하고 사행단을 다시 꾸리도록 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崔錫鼎을 주청정사로 한 사행단을 새로 조직했는데, 이때 송상기가 서장관으로 선발되어 청나라에 파견되었다.¹⁵⁾ 이의현이 ‘오랑캐의 칭찬을 받았다’고 말한 사건이 바로 이 일을 가리킨다. 아마도 이 당시에 송상기가 청국의 조정에 올리는 咨文을 여러 차례 지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옥오재집』에는 물론이고 당시 사행에 참여했던 崔錫鼎과 崔奎瑞의 문집에도 이때 지어진 글은 단 한 편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청국을 事大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시대적 분위기에서, 굴욕적인 내용이 담긴 글을 굳이 수록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일 터다.¹⁶⁾

전하께서 경연에 나와 학문을 익히시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 읽는 것은 章句의 말단이고, 강론하는 것은 대략적인 文義일 뿐입니다. 은미한 말과 심오한 뜻에 대해서는 힘써 연구하고 깊이 탐색하려는 의지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루에 세 번씩 경연관을 만나고, 만 권의 책을 읽는다고 해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것과는 조금도 상관이 없어 끝내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요즈음 경연에서 『주역』을 강론하고 있는데 한해가 다 가도록 마치지 못하면서 한 달이 넘

13) 宋相琦, 「右議政淸城府院君文忠金公神道碑銘(并序)」, 『玉吾齋集』 권14. “文章精深典麗, 豐約合度, 詞理俱備, 奏議尤明嚴剴切.”

14) 宋相琦, 「先府君行狀」, 『玉吾齋集』 권14. “簡牘疏章, 理勝辭達, 明白切實, 無一點浮華之氣.”

15) 『숙종실록』 23년 3월 11일, 윤3월 29일조 참조.

16) 『玉吾齋集』 권2에 이 당시 송상기의 심정을 대변하는 시가 여러 편 보인다. 「瀋陽有感」에서는 청에 볼모로 잡혀갔던 金尙憲을 추억하며 굴욕적인 연행을 가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였고, 「燕京感懷」에서는 ‘再造之恩’에 보답하지 못함을 한탄했으며, 崔錫鼎과 번갈아 지은 「北征聯句百韻」에서는 아무런 은혜도 베풀지 않은 청에 예물을 바치러 가는 약소국 사신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도록 경연을 폐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전하의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너무 춥거나 더울 때는 중지하던 전례에 따른 것도 있지만, 공부가 이처럼 중단되면 어떻게 이치를 깊이 이해하고 꿰뚫어 뽐을 밝혀나가는 성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¹⁷⁾

위의 글은 『옥오재집』에 수록된 소차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지은 「玉堂遇災陳戒箴」의 일부다. 홍문관 저작에 임명된 30세(1686년) 때 지은 글이지만 이의현과 박필주 모두 언급하였을 만큼 구조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완숙한 경지를 보여준다. 천재지변에 당하여 올리는 소차는 대개 하늘의 뜻을 받들어 국정 운영에 잘못은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게 마련이다. 이 글도 그러한 일반적 문법을 따라 마음을 바르게 할 것, 성인의 학문을 강론할 것, 언로를 회복할 것, 국가 경비를 절약할 것, 궁중의 법도를 엄하게 할 것, 관료들이 태만하지 않도록 할 것 등 여섯 가지를 간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심중한 내용을 자연스러우면서도 치밀하게 계산된 행문에 담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상당한 장편의 글이지만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재해가 어떤 의미를 지니며 어떤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했는지 전고를 들어 밝힌 1단락(起), 지금은 재해가 일어날 만큼 정치를 잘못된 일이 없는데도 재해가 발생했으니 겸허한 마음으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 하여 여섯 조목의 간언을 이끌어내는 2단락(承), 여섯 조목의 중요성과 현실을 번갈아 대비하여 서술한 3단락(轉), 그리고 이 여섯 조목을 진언한 것은 오로지 충심의 발로임을 강조한 4단락(結) 등 오늘날의 문장구조 원칙을 고스란히 구현하고 있다. 그리고 군왕에게 올리는 공거문인 만큼 문장을 도치하거나 할렬하는 따위의 수사적 기교나 조탁은 전혀 없으며, 유사한 구식을 연속적으로 배열하여 자연스러운 행문과 리듬감을 주고 있다.

텍스트나 전고를 활용하는 방법 역시 주목할 만하다. 송상기는 각각의 조목을 진술할 때 권위 있는 텍스트나 전고를 인용함으로써 논거를 확보하고 글의 설득력을 높였다. 즉, 마음을 바르게 하는 문제에 관해 진술하면서 “군왕의 한 마음은 만 가지 조화의 근본(人主一心, 萬化之本)”¹⁸⁾이라는 말로 논의를 시작한다거나, 언로에 관해 언급할 때 “諫諍之術”¹⁹⁾의 고사를 인용한 것, 경비 절약에 대해 말하면서 ‘나뭇물이 호리병을 채울 수는 있지만, 강물이 있어도 새는 술잔을 채우지는 못한다’²⁰⁾고 한 말을 인용하는 식이다. 육경과 제자서, 역사서와 성리서 등 폭넓은 텍스트를 인용하되, 논의를 시작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논의를 전개해나가는 도중에 사용하기도 하며, 논의를 마치고 강조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 등,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글의 논리를 강화하고 설득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17) 宋相琦, 「玉堂遇災陳戒箴(丙寅)」, 『玉吾齋集』 권5. “竊謂殿下臨筵講學之際, 所讀者章句之末也, 所講者文義之粗也, 至於微辭奧旨, 未見有力究深探之意. 夫如是, 則雖日勤三接, 讀盡萬卷, 與自家身心了無干涉, 而終無以致其效矣. 今茲易經進講, 經歲未畢, 而間有踰月廢閣之時, 此雖或由於玉候之違豫, 或拘於寒暑之例停, 而工夫之間斷如此, 則尚何望融會貫通, 以致緝熙之功乎?”

18) 이와 비슷한 말이 韓文의 「裁冗食節冗費奏」(『御選明臣奏議』 권12)에 보인다. “蓋人君一身, 實為萬化之本. 君能自行, 則不令而行, 君不能自行, 則雖令不從.” 하지만 이는 이전부터 전해져 상식화된 표현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李穀의 「皇帝王霸之道」(『稼亭集』 권13)에 이미 “心者一身之主, 萬化之本, 而人君之心, 出治之原, 天下治亂之機也.”란 말이 보인다.

19) 백성들이 정치의 잘못을 비판하는 말을 써 놓도록 길에다 세워 놓은 나무를 가리키는 말로, 舜이 이로써 정치의 잘못을 반성했다고 한다. 『呂氏春秋』 「自知」 편 참조.

20) 『淮南子』 「汜論訓」 참조.

이 글의 서두에서 고문과 관각문을 구별하여 말했지만 고문의 연원과 변주, 그리고 범주의 다양성이란 면에서 보면 양자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교서·옥책·반교문 등 변문에 뿌리를 둔 일부 양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각문, 특히 절대적인 분량을 차지하는 소차는 대개 고문이 지향하는 정신과 형식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문과 관각문을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한가. 이는 결코 그렇지 않다. 전해져오는 허다한 비평 자료들이 고문과 관각문을 나누어 말한 데²¹⁾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관각문은 필자가 주체가 되어 쓴 글이나 국가를 찬양하거나 대리하기 위해 쓴 글이냐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이 현격하게 다르다. 전자의 경우 가장 중시되는 것은 의사소통 기능이다. 정치적 판단이나 이해득실에 직면하여 치밀한 논리와 신뢰성 있는 논거, 명쾌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힘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이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매우 권위적이고 격조와 품위를 중시하며,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글은 매우 세련되고 장중하기는 하나 작가의 개성이 표백되어 거의 드러나지 않게 된다.

이 점은 송상기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端宗 복위 후 實錄을 개수하게 된 과정과 의미를 밝힌 「端宗大王實錄附錄後記」, 숙종과 숙종비의 존호를 올린 일을 기록한 「璿源譜略跋」, 숙종의 셋째 아들 延齡君의 묘지명 「王子延齡君諡孝憲公墓誌銘」, 景宗妃 沈氏의 지문 「端懿嬪誌文」, 청에 보낸 숙종의 諡狀 「肅宗大王諡狀」 등 국가를 대표하거나 왕가를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글들은 한결같이 격조 있고 세련된 문체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차류 산문에서 보여준 주밀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작법을 잘 발휘하고 있다.

況我聖上, 多年靜攝, 未遑御朝者已久, 而初既親臨, 錫宴于耆老諸臣, 以寵樂之, 繼又勉循羣請, 特學盛儀, 禮行七爵, 酬酢無倦, 天顏敷腴, 和氣藹洽. 凡厥在位臣工, 昵近清光, 欣欣相告, 舉切庶幾無疾病之祝, 而八域羣生, 亦將咸囿於仁壽之域, 則此又與前日之宴, 有萬萬不侔者矣.²²⁾

게다가 우리 전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조섭하느라 조회를 볼 겨를이 없으신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에 비로소 몸소 진연에 참여하였다. 기로사의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어 총애함을 보임으로써 즐겁게 하였으며, 이어 또 여러 신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별히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였다. 예에 따라 일곱 번 술잔을 올렸는데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으며 天顏이 활짝 펴지고 온화한 기운이 두루 넘쳐났다. 자리에 참여하였던 신하들이 맑은 기색을 가까이 하게 되자 기쁜 마음으로 서로 ‘아마도 병환이 없으신가보다.’라는 축원의 말을 주고받았다. 온 나라의 백성 또한 좋은 정치에 마음 편하여 오래 살게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예전의 진연과 조금도 같지 않은 이유이다.

숙종이 60세 생일을 맞아 耆老所에 들어가게 된 일을 기념해 열린 진연도 병풍에 쓴 「進宴圖稷屏跋」의

21) 송상기와 밀접한 관계에 놓인 인물들의 발언만으로도 이 점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金尙憲, 「月汀先生集跋」, 『清陰集』 권39. “竊慨我朝文苑, 自卞春亭以下, 率皆規唐操宋, 樂習軟美, 號爲館閣體. 顧於古文辭, 大有徑庭.; 李宜顯, 「陶峽叢說」, 『陶谷集』 권28. “我國人最重科業, 雖文詞超群者, 無不折入於科業, 所製有表策而已. 曾不着力於古文, 不過以韓蘇爲範, 用作科場館閣酬應之資而已. 至宣祖朝, 崔簡易尹月汀數公, 始崇長古文, 一時習尚頓變, 其功可謂大矣.”

22) 宋相琦, 「進宴圖稷屏跋」, 『玉吾齋集』 권13.

일부다. 수사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실었다. 먼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살펴 보자. 군왕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御’ ‘親臨’ ‘錫’ ‘七爵’ ‘天顏’ 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예의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未遑’ 즉 ‘겨를이 없었다’는 표현을 씌으로써 결코 국정을 태만히 여긴 것이 아님을 드러냈고, ‘循’ 앞에 ‘勉’자를 덧붙임으로써 건강이 썩 좋지 않은데도 신하들의 청을 따라주었음을 나타냈다. 그리고 『書經』에서 흔히 쓰는 접두사 ‘凡厥’과 『詩經』 「周頌」 편의 편명이기도 한 ‘臣工’ 등의 표현을 쓰는가하면 안정적이고 중후한 느낌을 주는 4언구를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고아한 문체미를 조성하였다. 또 ‘庶幾無疾病’²³⁾이란 인용문을 통해 군왕의 안녕을 모든 신료와 백성이 축원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송상기의 관각문은 주밀한 구상과 원숙한 문장력에서 비롯한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문체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 이는 관각문이 구현해야 할 미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송상기는 관각문의 장르적 규범을 분명히 인식하고 준용하였다. 이럴 경우 상투적이라는 함정에 빠지거나 지루하고 진부하다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송상기의 관각문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모범적이고 격조 높은 관각문을 구현하였는데, 특히 문장력으로 이름이 높은 작가들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려다 범하기 쉬운 유희인 수사적 조탁을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 이루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언뜻 보면 그저 평범한 글 같지만 이러한 성취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사위 李夏坤에게 당부한 글에서 ‘문장을 짓는 것이 비록 작은 재주에 불과하지만 사람이 마음속에 지닌 가장 정제된 사고가 표출된 것’이라고 하며 ‘뺨를 째는 고통을 참으며 끈질기게 노력해야만 얻어지는 것’이라서 ‘거친 주먹을 휘두르고 큰 발길질을 하듯이 단계를 뛰어넘고 차례를 무시한 채 단번에 뛰어오르려고 하는 이들은 얻을 수 있지 않다’고 경계한바²⁴⁾ 있듯이 송상기의 관각문이 보여준 높은 성취 또한 부단한 연찬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IV. 고문가로서의 가능성 - 記文의 문학적 성취

『옥오재집』에 수록된 산문 중 가장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疏箚로 89편에 달한다. 그러나 작가의 개성이 발휘되기 비교적 용이한 序·記·題跋은 상대적으로 적어 서 7편, 기 9편, 제발 3편이 있을 뿐이다.²⁵⁾ 그러나 이 가운데는 문학적으로 조명할 만한 가치를 지닌 작품들이 적지 않은데, 이 가운데에서도 遊記가 특히 눈에 띈다.

23) 『孟子』 「梁惠王(下)」 참조.

24) 宋相琦, 「贈李郎(夏坤)序」, 『玉吾齋集』 권13. “文章雖小技, 亦出於人心之最精者. 古之人志於此事者, 其淺深高下, 固各不同, 而莫不以刻厲專篤而得之, 未有靡拳大踢躑等凌節一超而上者也.”

25) 碑誌도 명성에 비하면 적은 편으로 碑銘 2편, 墓誌銘 4편, 墓碣銘 6편, 墓表 3편이 실려 있다. 祭文은 24편으로 적지 않은 분량을 점유하고 있지만 군왕이나 종실 사람과 관련된 축문, 혼신의 관작을 회복시킨 후 지은 제문, 趙憲·宋時烈 등을 서원에 배향할 때의 축문 등 공식적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 상당수다.

옛날 산수 유람을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들은 승경을 찾아다닐 준비가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도 자신만이 도달한 경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비록 仁과 智의 즐거움을 완전하게 안 것은 아니지만 요컨대 그들이 매우 즐기고 대단히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마도 자신의 힘을 다하고 눈으로 살펴보는 것을 꺼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저씨께서 서대산에 오르실 때 고생하신 것은 힘만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수를 즐기려는 마음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런데도 금강산을 유람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저를 속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²⁶⁾

위는 從叔 宋奎運을 전송하는 글의 일부다.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금강산으로 유람을 떠나는 종숙에게 송상기는 유람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산수를 즐길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서대산을 함께 유람하였던 경험 때문이다. 처음에는 정상에 오를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하더니 막상 산에 오르기 시작해서는 중간에 지쳐서 한걸음도 못 떴겠다고 해 송상기를 난처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때문에 송상기는 서대산도 겨우 오른 분이 금강산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 것이다.²⁷⁾ 그렇다면 서대산을 오르던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

아침 식사 후에 나와 종숙인 계응은 가마를 타고, 여성 형과 지경 아우는 지팡이를 짚고서 따라왔다. 절로부터 오른쪽으로 돌아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가면서 위를 바라보니, 산허리 위쪽으로는 압벽은 마치 깎아낸 것 같아 원숭이나 새라고 해도 넘어가기가 어려워 보였다. 1리도 못가서 길이 더욱 험준하여 어쩔 수 없이 가마를 놓아두고 짚신과 지팡이 차림으로 걸어 올라갔다. 내가 마침 선두에 서 있어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정신이 팔려 뒤에 오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올라가야 할 것에 대해 의논할 겨를이 없었다. 여기서부터는 올라갈수록 길은 더욱 가팔라지는데, 소나무와 상수리나무 그리고 여러 넝쿨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 속에 좁다란 오솔길이 나있었는데, 마치 실처럼 너무나도 좁았다. 두 발을 디딘 곳 외에는 깎아지른 낭떠러지와 우뚝한 절벽이 몇 백 척이나 되는지 모를 정도로 펼쳐져 있었다. 반드시 자세히 살핀 뒤에야 발걸음을 옮겨놓을 수 있었다. 새나 지나가고 뱀이나 기어갈 수 있을 정도로 험한 길이 또 몇 굽이나 되는지 알지 못할 정도였다. 2~3리에 걸쳐 계속 길이 이렇게 나 있었는데, 문득 산 중턱을 바라보니 너무나 험준하여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이에 승려들이 나무로 棧道를 만들었는데, 아래로 깊은 골짜기를 굽어보니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 광경을 쳐다보니 발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잠시 쉬었다. 종숙 계응이 뒤따라와 두려운 기색이 가득한 얼굴로 말하기를, “나는 이제 힘이 다 떨어졌으니, 그만 갈려다. 그만 갈래.”라 하였다. 내가 “산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올라가면 도달할 수 있는데, 왜 그만두려 하십니까. 더구나 ‘천천히 가면 산꼭대기에 오를 수 있다’고 옛 사람이 말하지 않았습니까.”라 하였다. 마침내 신속하게 잔도를 건너니, 또다시 위

26) 宋相琦, 「送從叔季應(奎運)氏遊金剛山序」, 『玉吾齋集』 권13. “古人之以山水爲性命者, 非但濟勝之有具, 亦其心有所獨至焉. 是雖未必盡知仁智之樂, 而要其深嗜篤好, 蓋不殫竭其力而徇其目. 然則叔之於西臺, 非但其力之不足也, 抑以心之不專於山水而然也. 如此而謂之遊金剛, 無乃欺余耶?”

27) 위의 글. “余笑曰: ‘叔安得爲此行? 不記前秋西臺事乎? 其始也, 意甚銳, 自謂不上顛不止也. 及其半而神怠色沮, 蹣蹣不敢進, 幾不免爲山靈所囑. 夫西臺雖高, 絕比金剛, 則直一培塿耳. 西臺之不能躋而何金剛之能遊? 世豈有匍匐於庭坳而能致千里之遠者乎?’”

태한 돌길이 눈앞에 펼쳐졌다. 돌길이 나 있는 골짜기는 구불구불 돌아나가 어느 방향으로 뻗어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내가 승려에게 “여기서 정상까지 가려면 얼마나 남았는가.”라 묻자, 승려는 “이제 겨우 절반쯤 왔는데, 앞으로 갈 길은 지금까지 지나온 길에 비하면 곱절이나 험준합니다.”라 대답하였다. 내가 비록 당당한 말투로 종숙 계승에게 계속 가자고 북돋았으나,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또한 겁이 났다. 그러나 더욱 용기를 내어 앞장서서 낭떠러지와 절벽을 더듬고 부여잡으며 올라갔다. 조금씩 가다 쉬기를 반복하며 거의 1리쯤 오르니,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서 더 이상 지팡이도 의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삼으로 된 노끈으로 허리를 묶고서 두 승려는 앞에서 당기고 두 승려는 뒤에서 밀게 했으나 도리어 뒤뚱거리려 나아갈 수가 없었다. 잔도를 건너 뒤로 처음에는 수 십 걸음마다 한 번씩 쉬다가 잠시 뒤에는 열 걸음마다 한 번씩 쉬었다. 얼마 뒤에는 겨우 몇 걸음을 옮긴 후에 곧바로 쉬다가, 마침내는 땅에 드러붙어 잔걸음질을 하면서 나아갔는데 입이 굳어 말을 할 수조차 없었다. 한 걸음 앞에 있는 땅이 500자도 더 멀어 보이니, 아마 고통이 극도에 다다랐기 때문일 것이다. 한 손씩 한 자씩 겨우 앞으로 나아가니 어느덧 높은 지점까지 도달하였다. 올라오면서 원숭이와 새도 건너가기 어려운 것 같은 그곳을 되돌아보니 전부 발아래에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정상이 그리 멀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정신을 차리고 급히 몸을 떨치고 일어나 죽음을 다하여 걸음을 재촉하여 곧장 올라갔다. 종숙 계승과 성환 형도 곧이어 올라왔다. 시각이 거의 午時쯤 되었을 때 마침내 정상에 올랐다.²⁸⁾

기문의 거의 절반이 이처럼 산행의 과정을 묘사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걸 보면 당시의 여정은 송상기에게 도 무척 힘들고 인상 깊었던 모양이다. ‘원숭이와 새도 넘어가기 어려운 것’같다는 표현을 산을 올라가기 시작할 무렵과 정상 근처에 도착했을 무렵 두 번에 걸쳐 말함으로써 수미가 호응하게 하고 공간적 거리감을 극대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또한 처음에는 가마를 타고 오르다 지팡이를 짚게 되고, 말 디딜 곳이 없어 이리저리 살핀 뒤에야 발을 떼고 길이 끊겨 잔도를 놓아가며 오르다가 마침내는 노끈으로 허리를 묶어 앞뒤에서 당기고 끌기도 하고 땅바닥에 바짝 붙어 엉금엉금 기었다고 하여 등반의 험난함을 매우 핏진하게 전달하고 있다. 게다가 중도에 포기하려는 종숙을 달래가며 오르다가 ‘고작 절반쯤 왔는데, 앞으로 갈 길은 이보다 곱절이나 험준하다’는 말을 듣고 낙담하였다는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글에 완급을 주는 한편 당시의 심리상태까지 아울러 드러낸 점도 인상적이다.

이 글은 경물 묘사 또한 상당히 섬세하고 구체적이다.

28) 宋相琦, 『西臺山記』, 『玉吾齋集』 권13. “翌朝, 告辦食後, 余與應叔乘之, 成兄·舍弟, 杖而從. 自寺右轉, 踰岡麓而上. 仰視山腰以上, 石壁如削, 猿鳥難度. 行未一里, 路益峻仄. 遂捨輿, 以草履藜杖, 步而行. 余適在前, 惟務趨進, 不暇與後來諸君相謀矣. 自此漸上漸高, 松樅藤蘿, 糾纏縹緲, 中通微徑, 僅如線, 兩趾之外, 絕壑懸崖, 不知其幾百丈, 必審視而後可置足. 鳥道蛇行, 又不知幾折. 如是者數里, 忽見巖腹峻削, 無可爲徑, 僧輩綴以木棧, 下臨深谷, 窅然無底, 俯視足痒心掉. 余乃少休于此. 季應氏, 追到色沮曰: “吾則力已盡, 欲止欲止.” 余謂 “山不在天, 上行則至耳, 何可已也? 況徐行到山頭, 非古人語耶?” 遂驚越棧道, 則絕磴當前, 豁然而平, 迷不知所向. 問於僧輩, 此去絕頂幾何? 答曰: “此僅中半, 而前路之危峻, 倍於後所經者.” 余雖以大言勉起應叔, 而聞此言亦悒. 然且賈勇先進, 攀崖捫壁, 且行且憩, 幾一里許, 則脚酸胸喘, 杖亦不可靠矣. 乃以麻絙繫腰, 兩僧前挽, 兩僧後推, 猶蹣跚不能行. 自越棧以後, 始則數十步一休, 少焉十步一休, 末乃數步輒休, 而蹣跚據頓地, 口噤不能語. 視前一步地, 不翅如百弓. 蓋其辛苦極矣, 而得寸得尺, 所歷已高, 回視向所望猿鳥難度處, 皆在脚下, 始知絕頂不遠. 更覺心急拚, 死力促踵直躋. 應叔·成兄, 亦相繼而至. 日幾午, 遂上上顚.”

“奇峰峭壁，戛霄摩空，石色蒼白，如列戟，如張屏，如怒猊，如騰虬，不可窮狀，而右邊一石筍，不倚附他峰，直聳數百仞，趾廣頂尖，如卓筆樣，尤覺奇拔，神甞(↑+雙)魄凜，殆難正視。又有大盤石，自上峰層疊，連亘至殿後下，覆如廈屋，其中空洞，可容百餘人，而一巨石橢而長者，中立撐柱，以支上巖。左右兩壁，亦純石不雜沙土。北邊有一小巖，可通隙照。縑徒琢小石佛，安于石屋中。殿宇直當其前，乃士女祈祝之所云。”

기이한 봉우리와 우뚝한 절벽이 하늘을 찌르고 허공에 닿을 듯한데, 바위의 색깔은 매우 희었다. 그 형상이 마치 창을 늘어세운 것과도 같고 병풍을 펼친 것과도 같고 성난 사자와도 같고 승천하는 이무기와도 같아 그 모습을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오른쪽 언저리에 石筍 바위가 하나 있는데, 다른 봉우리에 기대지 않고 곧게 수백 길이나 솟아 있었다. 밑동은 넓고 꼭대기는 뾰족하여 마치 오탁하게 세워둔 붓 모양을 하고 있어 더욱 기이하였다. 정신이 놀라 얼어 버려 차마 그것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또 커다란 너럭바위가 하나 있는데, 산꼭대기로부터 층층이 포개져 쪽 이어져내려 전각의 뒷부분까지 내려와 있었다. 큰 집의 지붕처럼 덮고 있는데, 그 속이 텅 비어 있어 100여 명 정도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며, 길쭉하게 생긴 큰 돌 하나가 기둥처럼 가운데 서서 위의 바위를 떠받치고 있었다. 좌우 양쪽 절벽은 모래가 전혀 섞이지 않은 깨끗한 돌로 되어 있었고, 북쪽에는 작은 구멍이 하나 난 곳으로 빛줄기가 스며들어왔다. 승려들이 작은 돌부처를 다듬어 석실 가운데 모셔두었다. 佛殿이 곧바로 그 앞에 마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소로 삼았다고 한다.²⁹⁾

서대산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다. 하늘을 향해 치솟은 봉우리의 윗부분에서 시작하여 차츰 낮은 곳으로 시선을 옮겨 석순처럼 생긴 바위와 층층이 포개져 전각까지 내려온 너럭바위의 형상을 설명한 후, 바위 아래 자리 잡은 전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歐陽脩가 「醉翁亭記」에서 보여준바 있듯이 대구도에서 소구도로 옮겨가며 초점화하는 서술방식은 기문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특징이다. 하지만 「서대산기」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대신 봉우리의 정상, 중간, 뿌리 3곳으로 시선을 나누어놓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특정한 한 자리에서 산의 모습을 관찰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다보면 글의 흐름이 지나치게 늦어져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글에서는 3언구를 연속적으로 배치하거나 散句를 돌출적으로 끼워 넣기도 함으로써 글의 완급을 조절하고 행문에 리듬감을 부여하였다.

이 글에서 이처럼 산행의 어려움과 봉우리와 바위의 형상을 묘사하는데 공을 들인 이유는 글의 마지막에 가서야 확인된다. 송상기는 산의 이름은 살갓(膚)보다 뼈대(骨), 즉 표면을 보고 짓지 않고 골격을 보고 짓는 법이라고 전제한다. 이런 전제를 내세운 이유는 서대산은 산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거대하고 괴이한 돌덩어리[一大怪石]라고 할 만큼 뼈대가 살갓을 압도하는 산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결국지난한 산행의 과정이나 봉우리와 바위의 형상을 힘주어 서술한 것은 서대산이 ‘제아무리 뛰어난 화가라도 그려낼 수 없으며’, ‘조물주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과 같은 기괴한 바위산임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였음을 깨닫게 된다.³⁰⁾

29) 위의 글.

30) 위의 글. “夫山之名者，率以骨不以膚，而骨亦有清濁雅俗之別。若茲山者，雄據一方，秀挺千仞，而膚不能半於骨。況其種種殊絕奇詭萬狀，似巧似拙，似妍似醜，雖使良工描寫，亦難彷彿其萬一。此非可以山名，乃天地間一大怪石也。無乃化翁搏弄隆施以資戲劇也耶?”

내가 보건대, 세상에 특이한 일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난 돌을 하나 구해다가 假山으로 삼아, 그것을 화본 위에다 올려놓고 으스대면서 신기하다 자랑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자기를 크게 여기는 것과 같은 꼴이다. 이와 비교한다면, 지금 내가 본 것은 또한 한 시대의 가장 웅대한 것이라 해도 될 것이다.³¹⁾

조선시대에 유행한 문화풍조 가운데 畵遊와 假山이 있다. 일부 호사가들은 자신이 직접 탐방하는 대신 화원으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한 후 집안에 누워 감상하기도 하였으며, 산의 형상을 닮은 돌로 정원을 꾸미기도 하였다. 자연을 통해 天理를 관조하고자 했던 성리학의 관념론이 이런 취미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원용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들은 傳神寫意라는 고전적 회화이론에 입각하여 산수 그 자체보다는 산수에 담긴 이치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여겼다. 따라서 굳이 산수를 찾지 않고 방안에서 그림을 감상하거나 정원에 옮겨진 기암괴석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物我交融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위 글에서 보듯 송상기는 이러한 풍조에 동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기까지 하다. 제아무리 신기한 형상을 한 돌이 있다한들 實蹟을 통해 얻어지는 감흥에 비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이와 비교한다면, 지금 내가 본 것은 또한 한 시대의 가장 웅대한 것이라 해도 될 것'이라는 구절은 의미심장하다. 이 말은 송상기가 서대산을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웅대한 산으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비록 자신이 체험한 서대산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산은 아닐지 몰라도 가산 따위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건준다면 세상에서 으뜸가는 산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경치가 매우 훌륭함에도 가까이 있는 것은 홀시하고 멀리 있는 것만 귀하게 여기는 까닭에 발걸음이 뜸하였던 것이라고 세상의 편협한 인식을 비판하며, 계룡산은 조선의 어떤 명산에도 뒤지지 않는 산이라고 힘주어 말한 것³²⁾도 결국 체험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라 할 것이다. 송상기의 이러한 태도에는 관념보다 실천을 중시하는 조선후기 지식인의 흔적이 묻어난다. 「서대산기」를 비롯해 「遊麻谷寺記」·「遊雞龍山記」·「遊北漢記」까지, 4편의 유기³³⁾가 한결같이 유람 과정에서 직접 본 사실들만 기록하고 있는 것도 관념보다 실천을 중시하는 태도가 근저에 형성되어 있었던 데서 비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중기 유기에 형상화된 산수는 심성을 수양하고 도체를 구현하는 공간이었고 학문을 탐구하고 시흥을 일으키는 공간이었으며 탈속적 이상향으로 치환된 공간이었다.³⁴⁾ 그러나 양탄의 체험과 명·청의 교체는 유기에 민족·국가·역사를 견인하는 작용을 했다. 소홀히 여겨져 왔던 변방의 땅까지 국토 곳곳을 방문하는 한편 역사적 사실과 지리적 특징을 꼼꼼히 고증한 유기들이 점차 증가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관념

31) 위의 글. 余見世之好事者, 得一角石假山, 置之盆盎, 猶詎以爲奇, 此眞井蛙之自大耳. 以此較之, 則今余所見, 亦足以雄一世矣. 所可恨者, 山無水簾瀑布等勝觀. 『春秋』責賢者備, 此則不得不爲山惜之也. 然天地之大, 猶有所不滿, 吾於茲山奈何哉?

32) 宋相琦, 「遊雞龍山記」, 『玉吾齋集』 권13. “又其溪山景物, 亦自難得. 雖人情忽近貴遠, 前後濟勝者, 足跡罕到, 而其佳觀勝致, 不必遽遜於域內名山. 山之遭遇, 亦有幸不幸而然耶?”

33) 독립된 작품은 아니나 권17 「南遷錄」에 속리산 유람에 관한 글 한 편이 더 전한다.

34) 자세한 사항은 이혜순 외(1997) 참조.

보다 실재를 중시한 송상기의 유기는 조선 후기로 이행하는 징후적 성격을 띤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송상기 유기의 섬세하고 주밀한 문체는 누정이나 당우를 제재로 쓴 기문에서도 여일하게 나타난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玉吾齋記」다. 이 글은 고향 懷德의 재실을 ‘玉吾’라 명명하게 된 이유를 밝힌 것으로, 자신의 인생관을 논쟁적 의지적이고 강건한 문체에 담아낸 인상적인 작품이다. 뜻하지 않은 일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거처를 ‘옥오’라고 이름하였다고 소개한 짙막한 서두를 제외한 본문의 대부분은 마을 사람(鄉人)과 송상기가 주고받는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다. 누추한 시골집에 옥오라는 자못 거창한 이름을 지은 것은 실상에 부합하지 않으니, 이는 여전히 벼슬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한 마을 사람의 힐난이 논쟁의 출발이다. 시골에 사는 이상 시골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의미이다. 이에 대한 송상기는 ‘옥오’라는 이름은 자신이 지은 것이 아니라 외삼촌 김수증이 지어준 것이라고 해명하는 한편, 그 뜻이 方孝孺에게서 비롯한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의론을 시작한다.

明의 儒人 方正學이 말하기를, “차라리 온전한 기와가 될지언정 훼손된 옥은 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식견 없는 사람의 말이다. 천하에 천 년 동안 제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는 옥도 없는데 어찌 깨지지 않는 기와가 있겠는가. 하늘이 나를 옥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내가 기와 같은 사람처럼 처신한다고 해도 그 기와가 반드시 온전한 모습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하늘이 나에게 준 옥과 같은 자질을 옥처럼 여겨 아름답게 지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³⁵⁾

송상기가 인용한 방효유의 말은 곧 「옥오재기」의 大旨이기도 하다. 송상기는 음이 양을 이기는 것이 천지 자연의 이치라고 하며, 부조리한 세상에 옳게 맞서다 좌절하거나 불우하게 생을 마친 이들이 많았음을 한탄한다. 때문에 이러한 환란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현명함을 감추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세상의 흐름에 따라 부침을 함께 한 사람도 있었던 것인데, 일신의 안위를 위해 자신이 추구해온 도를 꺾었음에도 ‘지혜로운 선비’라고 하거나 ‘자신을 온전히 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었다고 개탄하였다. 運數와 禍福과 死生은 인간의 노력 밖에 있는 것이므로, 오직 ‘나 자신에게 있는 것’에 힘써야 할 따름이라는 강건한 의지를 피력하였다.³⁶⁾

“夫所謂在我者, ①拱壁尺蔡, 不足以易其寶; 千駟萬鍾, 不足以當其貴, ②威武有不能屈, 鼎鑊有不能奪, ③達則以之行道濟世, 而富貴崇高, 有不與也; 窮則以之守死善道, 而顛頓危亡, 有不避也. 雖世故百變, 時

35) 宋相琦, 「玉吾齋記」, 『玉吾齋集』 권13. “明儒方正學之言曰: ‘寧爲瓦全, 無爲玉毀者, 此無識者之言也. 天下固無千載之玉, 而豈有不毀之瓦乎? 天玉我而我瓦之, 瓦未必全也, 曷若玉吾玉之爲美耶?’”

36) 위의 글. “君子之處於世也, 遭遇明時, 展布志業, 家國俱榮, 身命兩全者, 此固爲士之至願, 而人情之所同也. 然而天地之道, 陰者常勝, 而陽者常詘. 故自古君子之不幸遭蹇者何限? 或柄鑿不合, 好惡相乖, 卒於挫捩坎壈而死者有之; 或忠言直道, 不避機辟, 至於滅身湛族而不悔者有之. 又有名位太盛, 被人忌嫉, 巧讒奇中, 不能自脫者焉; 又有身當顛沛, 力扶彝倫, 以死自矢, 甘心立謹者焉. 雖其得禍, 各隨而異, 而論其所遭, 槩乎其可悲也. 是以古之人, 有創乎是, 斲方爲圓, 斂知若愚, 浮沉乎世俗之波, 混同乎塵垢之塗, 甚至苟可以保其身, 則不恤乎其道之暨枉也; 苟可以施其患, 則不嫌乎其志之少屈也. 以是而謂之智士, 以是而謂之完人. 嗚呼! 君子之道, 豈實使然哉? 夫通塞時也, 禍福天也, 死生命也. 是三者, 非人之所能與也, 所當盡者, 惟在我者而已.”

運相爐，而顧吾之所守則如一焉。是其心固不必求其全，而亦何嘗避其毀也。且天之所以與我者，若是其實且貴焉，則烏可隨俗遷移，以自卑污，反吾之所受者而必以苟全爲哉?”³⁷⁾

이른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은 아름답디 보옥과 한 자나 되는 거북으로도 그 보배로움과 바꾸기에 부족하고, 千駟의 말과 萬鍾의 녹봉으로도 그 고귀함을 당할 수 없다. 위세와 무력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으며, 가마술에 삶아 죽이는 형벌로도 빼앗을 수 없다. 현달하면 도를 행하여 세상을 구제해야 하지만 제아무리 높고 큰 부귀라도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하며, 곤궁해지면 죽음으로 지키면서 도를 행해서 어떠한 고난과 위험이 닥쳐와도 피하지 않아야 한다. 비록 세상일이 백번 바뀌고 시운이 변하더라도 내가 굳게 지키는 바는 한결같아야 한다. 이것은 진실로 자기 자신이 온전하기를 구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니 훼손되는 것을 어찌 피하겠는가. 또 하늘이 나에게 부여해준 것이 이처럼 보배롭고 고귀한데, 어찌 세속의 흐름에 따라 변해서 스스로 비천해지고 더럽혀져서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것과 상반되게 하면서까지 구차히 목숨을 온전히 지키려하겠는가.

“④晴窗棐几，默坐焚香，左右圖書，一塵不到者，此玉吾之室也；⑤脩姱是好，鄙吝是祛，握瑾懷瑜，絕垢離齷者，此玉吾之身也；⑥玩索高明，獨觀昭曠，止水明鏡，無少玷翳者，此玉吾之心也。以是而名吾居，豈可謂之無實哉?”³⁸⁾

맑은 창 아래 비자나무 책상을 놓고, 묵묵히 앉아 향을 피우고, 좌우에 놓인 책에 티끌 한 점 앉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방을 옥처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비루하고 인색한 것을 제거하며 보배로운 것을 품고 더러운 것을 끊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몸을 옥처럼 귀하게 하는 것이다. 高明한 이치를 곰곰이 탐구하여 밝히고 드넓은 경치를 홀로 바라보고, 고요하게 정지한 물과 깨끗한 거울처럼 흠과 먼지가 없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마음을 옥처럼 맑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내 집에 ‘玉吾’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어찌 실제적이지 못하다고 하겠는가.

①~③의 문장은 각각 앞구와 뒷구가 문법상으로는 내용상으로는 정확하게 대를 이루고 있다. 송대 고문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런 기법은 평이하고 안정적인 문체 특징을 띠기 때문에 조선의 문단에서 폭넓게 선호되었다. 따라서 이런 문체를 잘못 구사하면 작가의 개성이 사라져 평범하다거나 진부하다는 평을 받을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그런데 송상기의 글은 각각의 문장이 개별 문장 단위에서는 대우를 이루고 있지만 문단 전체에서 보면 각각의 문장이 모두 서로 다르다. 또 독자의 감정에 소구하는 의지적이고 강인한 어조도 눈에 띈다.³⁹⁾ 이는 글의 기세를 살리고 리듬감과 속도감을 부여하고 있는데, 세속적 삶과 영합하지 않겠다는 이 글의 정신을 강조하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설득’이라는 수사적 목표가 달성된 뒤에는 전혀 다른 행문법을 구사한다. ④~⑥이 바로 그것인데, 淸言小品을 연상케 하는 4언구를 반복하

37) 위의 글.

38) 위의 글.

39) 이처럼 독자의 감정에 소구하는 방식이 잘 나타난 작품으로는 「先府君行狀」을 꼽을 수 있다. 송시열과 송준길을 변호하는 소장을 올리고자 하였으나 병석에 있던 노모의 만류로 결행하지 못한 부친 송규림의 일화가 곡진하게 묘사되어 있다.

여 ‘玉吾’라는 이름에 담긴 담박하고 정결한 삶의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송상기의 산문은 얼핏 보면 개성 없이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작가의 개성이 문체적 균질감에 갇혀 실종되는 법이 없다.

V. 나가는 말

오늘날 우리가 문장가라고 일컫는 이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당대부터 명성을 얻은 문장가. 둘째, 현대에 이르러 재발견된 문장가. 당대에 명성을 얻은 문장가란 이른바 ‘古文’이 지향하는 성격과 가치를 잘 구현했다고 평가받은 문인들을 가리킨다. 이에 비해 현대에 이르러 재발견된 문장가란 당대보다 오히려 현대에 와서 더 주목받은 문장가란 의미로, 고문의 성격이나 가치를 얼마나 잘 구현했느냐와 무관하게 오늘날의 독자에게 공명할 수 있는 무엇을 남긴 문인들을 이르는 말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문인이 늘 서로 겹친다면 이처럼 분류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오늘날에는 뛰어난 작가로 각광받게 된 柳夢寅·許筠·李用休·李鎰 등의 사례가 이런 경우에 속한다. 이들의 문장이 오늘날에 와서야 주목받게 된 데에는 그들의 신분이라든지 정치적 위상, 사승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문학적 차원에서 말한다면 오늘날의 연구경향이 ‘어떻게 말하였느냐’보다 ‘무엇을 말하였느냐’, 즉 형식보다 내용을 중시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형식과 내용은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와 공간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그러나 학습수준이나 독서경험, 문화적 환경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 편차가 큰 형식은 내용에 비해 훨씬 더 시대와 공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따라서 형식보다 내용을 중시하게 되면 당대의 평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평가기준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결과 외부적 조건에서 벗어나 현재적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문산문 연구 풍토가 이처럼 내용 쪽에 편중되는 현상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차분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문학을 바라보는 기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오늘의 독자가 고전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정교하고 세련된 표현미라면 그 감식 능력이 아무리 과거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방법을 찾아 내려 노력했을 터다. 하지만 오늘의 독자가 고전에서 갈구하는 가치는 오랜 시간 공력을 쏟아야 알 수 있는 표현미가 아니라 어떤 언어로 번역해도 선명하게 이해되는 메시지다. 이런 독자의 취향과 요구를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고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당시 문단의 경향과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작품 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오늘날 독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과거 문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던 표현미를 파악하는 작업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들어 학계 일부에서 ‘당대의 문장가’들의 작품을 분석적으로 다뤄보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아직은 일부 문장가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연구 결과물이 축적됨에 따라 한문산문의 다채로운 표현미가 구조적이고 맥락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송상기의 산문

을 연구해야 할 이유도 바로 이런 점에 있다. 송상기는 이처럼 연구자의 관심에서 소외된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문단에서 관각문의 고수로 이름 높았던 文翰이다. 그는 다량의 疏劄와 啓·議·箋을 남겼으며, 국가와 군왕을 대변하는 문서인 頒敎文·冊文·敎命文·敎書·樂章 등을 지었다. 또한 『東文選』과 『東文選』속집의 뒤를 잇는 관찬 시문선집인 別本 『東文選』의 편찬을 주관하기도 하였다. 이런 그의 문학적 성취는 權近·卞季良·徐居正·成俔 등 전기의 관각가와 南有容·李天輔·黃景源 등 후기의 관각가 사이에서, 조선의 관각문이 어떤 성격과 맥락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관각의 문장가로서 뚜렷한 자취를 남긴 송상기의 문학적 성취에 주목하여, 그의 산문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18세기 문단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했다. 16세기 후반 이후 산문 창작과 비평의 중심이 고문 방면에 집중되면서 관각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그 결과 관각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관각문은 나름의 의미와 기능을 유지한 채 꾸준히 창작되었다. 이런 점에서 숙종 연간 관각문단의 대표적 인물인 송상기의 문장에 대한 연구가 보다 정밀하고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문단의 모습이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ndex>, 2012.

『御選明臣奏議』; 대만: 商務印書館 영인, 『문연각사고전서』 433~442, 1990.

金尙憲, 『淸陰集』;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영인, 『한국문집총간』 77, 1990.

金昌協, 『農巖集』;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영인, 『한국문집총간』 161~162, 1996.

金昌翁, 『三淵集』;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영인, 『한국문집총간』 165~167, 1996.

朴弼周, 『黎湖集』;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영인, 『한국문집총간』 196, 1997.

宋時烈, 『宋子大全』;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영인, 『한국문집총간』 108~116, 1990.

宋相琦, 『玉吾齋集』;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영인, 『한국문집총간』 171, 1997.

宋相琦 편, 『別本東文選』 1~4, 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 1998.

李穀, 『稼亭集』;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영인, 『한국문집총간』 3, 1990.

李宜顯, 『陶谷集』;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영인, 『한국문집총간』 181, 1997.

正祖, 『弘齋全書』 5, 서울: 태학사 영인, 1986.

趙正萬, 『寤齋集』;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영인, 『한국문집총간』 속집51, 2007.

崔岙, 『簡易集』;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영인, 『한국문집총간』 49, 1990.

姜賢敬(2003), 「鷄龍山 遊記에 대한 研究」, 『한국한문학연구』 31집, 서울: 한국한문학회.

李鍾默(1998), 「별본 『東文選』 解題」, 『別本東文選』 1, 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

李鍾默(2009), 「17~18세기 中國에 전해진 朝鮮의 漢詩」, 『한국문화』 45, 서울: 규장각한국학연구소.

이혜순 · 정하영 · 호승희 · 김경미(1997), 『조선 중기의 유산기 문학』, 서울: 집문당.

* 이 논문은 2012년 6월 27일에 투고되어,
2012년 7월 2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2년 8월 1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2년 8월 1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Song Sangki(宋相琦)'s Prose

Kim, Woojeong*

This thesis explores the status and artistic characteristic of Song Sangki(1657~1723) during the Sukjong and Youngjo period. Song Sang Gi is an expert writer that was recognized at the 'Gwankakmun'(館閣文: official character) during the late 17th to 18th century. At Gwankakmun, he showed a comfortable, realistic, and graceful yet meticulous Gwankakmun type of writing that reserves his personality from coming off too strongly and keeping in mind the situation and story at the same time. Also, he supervised publish *Dongmunsun* that is official third selections of prose and poetry and it's follow up previous. Such literary achievements follow in the foot steps of pre-Chosun period writers like Gwon Geun(權近), Byun Gyeryang(卞季良), Suh Guhjung(徐居正), Sung Hyun(成俔) and post-Chosun writers like Nam Yuyong(南有容), Lee Chunbo(李天輔), Hwang Gyungwon(黃景源) and show a unique style of writing characteristics and historic developments. On the other hand, prose of Ki(記) style, which reflects his personal style is deeply concerned with a descriptive writing flow and a meticulous structure of writing and a true and clear reasoning, that realizes a rich literary value. Given all these facts, Song Sangki is not only a forerunner for late 17th century Gwankakmun, but is also a recognizable writer as a Gomun(古文).

[Key Words] Song Sangki(宋相琦), prose, Gomun(古文), Gwankakmun(館閣文)

* Professor, Dankook University